

본격 결혼시즌...신혼집 구하기 쉬워질까

광주 새 아파트 전세가율 66%로 2년새 16%p 떨어져
금융권 대출규제에 입주물량 증가...시세보다 싸게 내놔

본격적인 결혼시즌에 돌입한 가운데 광주지역 새 아파트 전세가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신혼부부들의 '전세 집' 마련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의 전세가율 하락은 금융권 대출규제와 입주물량 증가로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5일 직방 빅데이터랩이 전국 새 아파트(입주 2년 미만) 전세가율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새 아파트 전세가율은 지난해 2017년 71%에서 올해 65%로 6% 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남구 봉선동과 광산구 수완지구 등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컸던 광주의 경우 올해 새 아파트 전세가율이 66%를

기록했다. 지난 2017년 82%에 비해 무려 16% 포인트가 떨어진 것이다.

전세가율은 아파트를 매매한 거래가격에 대비한 전세거래 가격의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전세가율 하락은 쉽게 말해 새 아파트 입주인들이 시세보다 싼 값에 전세를 내놓고 있다는 의미다. 또 이날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4월 4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을 보면 지난주에 비해 광주시 동구는 전세가율이 0.08% 하락했고, 광산구와 남구도 각각 0.04%, 0.05%씩 하락했다.

이처럼 최근 광주지역 전세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금융권의 대출규제와 맞물려 지역 내 입주물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 금융권의 대출 규제로 잔금마련과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새 아파트 입주인들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전세 물량을 내놓고 있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관측이다.

여기에 광주지역 입주 예정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전세가율 하락세에 큰 몫을 하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광주에서는 4271가구 물량의 아파트가 입주를 예정에 두고 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28.8%가 증가한 것으로 전세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우선 이달 광산구 '첨단 금호어울림 더 테라스'가 460가구가 집들이에 나선다. 또 5월에는 동구에서 산수동 '무등산 그린웰 로제비앙'와 용산지구 '계룡리슈빌 2블록'이 각각 820가구와 1074가구의 입주자를 맞이한다. 남구 '효천1B2블록 시티프라디

움' 1164가구와 서구 쌍촌동 '상무 한국아텔리움' 267가구 등 다음달에만 3325가구의 물량이 풀린다.

이후 6월에는 동구 '내남지구 1블럭 진아리채' 268가구, 서구 화정동 '엘리체 퍼스티지' 218가구 등이 남아 있다.

금융권 대출 규제가 가시화되면서 주택사업자들이 분양사업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 광주지역 분양물량도 쏟아지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은 '내집 마련'과 '전세집' 마련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직방 관계자는 "입주물량이 늘어나면서 전세공급이 꾸준히 증가하고 대출규제 등으로 잔금 마련 압박을 받는 집주인들이 저렴하게 전세를 내놓는 사례가 많아 전세가율 하락이 동반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190.50 (-10.53) ↓ 금리(국고채 3년) 1.72 (-0.03)
↓ 코스닥 750.43 (-7.39) ↑ 환율(USD) 1160.50 (+9.60)



한전 '기후변화대응 우수기업' 3년 연속 선정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중갑)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개최된 '2018 CDP 기후변화 대응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에너지&유틸리티 부문 우수기업'으로 3년 연속 선정됐다.

CDP(Carbon Disclosure Project)는 2000년에 설립돼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비영리 기관으로, 92개국 주요 상장기업들의 기후변화대응 전략과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감축노력 등을 공개해 기업에 투자하는 금융기관에게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회와 위험 요인을 투명하게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상장기업 중 시가총액 상위 2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경영 관련 정보를 요청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CDP 한국위원회는 매년 국내 우수 기업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최고 평가등급을 달성한 기업에게 수여되는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Carbon Management Sector Honors)는 총 10개 부문 16개 기업이 선정됐다.

한전은 에너지&유틸리티 부문에서 지속적인 탄소경영 노력을 인정받아 '16년~'18년까지 3년 연속 수상함으로써 탄소경영 분야 우수 기업임을 입증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관세행정지원제도 설명회

여수세관·광주세관 합동

여수세관(세관장 이상협)은 25일, 여수세관 대강당에서 관내 관세사 및 수출입업자를 초청해 '성실신고 정착을 위한 관세행정지원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광주세관과 합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여수세관은 관세율 및 과세가격을 잘못 신고할 경우 수출입업체가 받게되는 부속세액 일시징수, 행정제재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자발적 성실신고제도를 안내했다.

또한 품목분류 사전확인제도,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 '납세도움정보' 제공 서비스 등 주요 성실신고 지원제도를 중점 소개했다.

여수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정보를 기업별로 발굴해 알려주고, 기업은 성실신고를 통해 법규준수도를 제고하는 예방적 관세행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 기자 lion@



롯데백화점 '어린이날 선물 상품전'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오는 26일부터 8층 아동매장에서 '어린이날 선물 상품전'을 열고 14만원 상당의 장난감을 2만9000원에 판매하는 럭키박스

를 100개 세트 한정으로 판매한다.

효성, 생산기술센터 6월 설립 추진

효성기술원과 공장 연계 기술력 강화 25명 규모 발족

효성은 생산기술력 향상을 위한 전담조직(생산기술센터) 설립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생산기술센터는 연구조직인 효성기술원과 생산조직인 공장을 연계시켜 전사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핵심기술요소에 대한 전문인력을 육성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센터는 생산기술관련 설비 검토는 물론, 시뮬레이션 및 설계·조건변경에 따른 방안 마련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기술원

의 연구결과를 공장에 바로 적용하는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여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 추가 증설에 대비한 전문인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센터는 올해 6월을 목표로 설립추진 중이며, 효성기술원 소속 연구원들과 섬유, 산업자재, 화학 관련 공장 기술팀 및 생산팀 직원들로 구성해 25명 규모로 발족을 준비 중이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효성이 자체 개발한 원천 소재는 혁신제품의 근간이며 경쟁

기업보다 앞설 수 있는 회사 경쟁력 창출의 핵심"이라며 "품질과 제품의 경쟁력 제고에는 반드시 기술력이 바탕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취임 때부터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효성은 조석래 명예회장의 주도로 1971년 국내 민간최초 부설연구소인 효성기술원을 설립해 운영해왔다. 효성기술원은 화학섬유와 전자소재, 산업용 신소재 부문의 연구 개발을 맡고 있으며, 스판덱스와 폴리에스터 타이어코드 등을 자체 기술로 개발하는 등 기술적 토대를 마련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금호타이어 엑스타 레이싱팀, CJ 슈퍼레이스 출전

금호타이어는 오는 27~28일에 열리는 '2019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개막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모터스포츠 활동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2014년 가수 겸 방송인인 김진표 감독과 일본 출신의 전 F1 드라이버 이데유지 선수, 정의철 선수 등이 포진한 엑스타 레이싱팀을 창단했다.

엑스타 레이싱팀은 창단 이듬해인 2015년 CJ슈퍼레이스에서 팀 우승을 차지했고, 2016년에는 팀 우승 및 정의철 선수가 시즌 챔피언에 오르는 통합 우승을 한 바 있다.

금호타이어가 출전하는 슈퍼 6000 클래스는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의 최상위 종목으로 국내 경주차량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와 파워(6200cc, 최고 436마력)를 지닌 레이싱 전용 스톡카로 겨루는 경주대회이다.

금호타이어는 F1용 레이싱 타이어 제작기술을 바탕으로 포틀러 기술에서 탄탄한 기본기와 노하우를 갖고 있으며 국내외 다양한 모터스포츠 대회의 공식 타이어로 지정돼 글로벌 타이어 브랜드로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호남의 미래와 희망 광주일보가 함께 합니다

창사67주년
광주일보

중앙만 바라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지역발전은 지방신문이 선도합니다

서울은 어디 있습니까?
지방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중앙지는 누구 편입니까?
지역신문은 우리 지역을 대변합니다.
지역신문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한국지방신문협회

광주일보 / 강원일보 / 경남신문 / 경인일보 / 대전일보 / 매일신문 / 부산일보 / 전북일보 / 제주신문